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양박 쌍용’ 16강 장벽 허문다

## 허정무호 전력 50% 이상 차지
## 양박, 컨디션 회복 득점포 기대
## 쌍용, 정교한 크로스 공격 조율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염원이 우리의 발끝에 달렸다’

축구대표팀의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간판 공격수 박주영(AS모나코), 오른쪽 날개 이청용(볼턴), 중원 사령관 기성용(셀틱)의 어깨는 무겁다.

허정무호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양박(兩朴) 박지성-박주영과 쌍용(雙龍) 이청용-기성용의 활약에 따라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그리스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승부가 결정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찬 박지성은 4-4-2 전형의 왼쪽 날개로 그리스 공략에 앞장선다.

박지성은 허벅지 부상 여파로 지난 4일 스페인과 마지막 평가전에 출장하지 못했지만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했다. 박지성은 왼쪽 측면 돌파는 물론 중앙을 오가며 허정무 전술 운영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다. 특히 두 개의 심장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그리스 수비진을 뒤흔드는 게 그의 임무다. 그는 그리스와 경기에서 시원한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4강 신화를 창조했던 2002년 한·일 대회와 2006년 독일 대회에 이어 월드컵 3회 연속 골 사냥을 노린다.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박주영은 ‘그리스 킬러’로 다시 한번 골문을 열어젖히겠다는 기세다.

박주영은 지난 2006년 1월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에서 0-1로 끌려가던 전반 24분 깔끔한 헤딩골로 1-1 무승부를 만들었던 주역이다. 그리스와 두 차례 A매치에서 골을 넣은 건 박주영과 이천수 뿐이기에 박주영은 다시 한 번 그리스의 골망을 흔들 기세다.

허벅지 통증 여파로 지난달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 결장했던 그는 부상에서 회복됐지만 스페인과 평가전 다음 날인 4일 피로 회복을 겸한 족구 경기를 하다 왼쪽 팔꿈치가 빠졌지만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았다.

박주영은 ‘왼발 달인’ 염기훈과 투톱으로 나서 월드컵 유럽예선 득점왕인 테오파니스 게카스를 최전방에 배치할 그리스 공략의 선봉장으로 활약한다.

젊은 피의 상징인 ‘쌍용’ 이청용과 기성용도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큰일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청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첫해 5골 8도움의 불꽃 활약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고 여세를 몰아 월드컵 무대에서 원정 16강 진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박지성과 좌우 날개를 이뤄 빠른 돌파에 이은 정교한 크로스로 공격의 활로를 튼다.

기성용 역시 김정우(광주 상무)와 중앙 미드필더 듀오를 이뤄 경기를 조율한다. 소속팀 셀틱FC에서 8경기 연속 벤치를 지키는 바람에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우려를 나았지만 이제는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다.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을 회복했고 빠른 드리블을 이용한 돌파와 상대 수비수 사이를 파고드는 스루패스도 좋아졌다.

기성용은 “경기장에 들어가면 긴장할 수도 있지만 이겨내야 하고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그리스와의 1차전을 앞두고 11일(한국시각)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 겔반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대표팀 훈련에서 염기훈(맨 왼쪽)과 강민수가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그리스, 반드시 깬다

■관전 포인트

# “세트피스 vs 세트피스” 프리킥골 누가 먼저

## 생소한 낮 경기·강한 바람 등 환경도 변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대회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2일 오후 8시30분(이하 한국시각) 포트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그리그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그리스,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를 이번 맞대결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세트피스 vs 세트피스=장신 선수들이 즐비한 그리스의 주요 득점원 중 하나는 세트피스다. 그리스는 지난달 26일 북한(2-2 무승부), 3일 파라과이(0-2 패)와 치른 평가전에서 짜임새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세트피스 만큼은 경기를 직접 관전한 허정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입에서 “위협적이다”라는 말을 이끌어냈다. 특히 키가 큰 수비수들까지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상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줬다.

이에 맞서는 허정무호도 세트피스는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공격 옵션이다.

오른발잡이 박주영(모나코)과 왼발잡이 염기훈(수원)은 훈련 때마다 짬을 내 프리킥을 찼고, 기성용(셀틱)은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료에게 정확하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배달하려고 노력해 왔다.

허 감독은 결전의 땅 포트엘리자베스에 도착해 첫 훈련을 진행한 10일 자체 연습경기 때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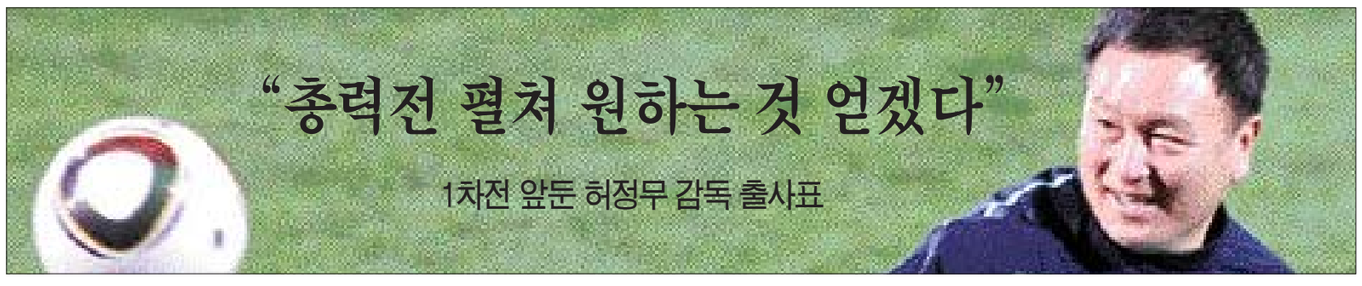
◇1차전 이겨야 16강 희망=각 조 1·2위에 주어지는 16강 티켓의 주인은 조별리그 첫 판에서 사실상 가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선 참가국이 24개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세 차례 월드컵을 되돌아보면 첫 경기의 중요성은 더욱 극명해진다. 1차전 승리 팀은 대부분 16강 문턱을 넘어섰다.

앞선 세 개 대회의 조별리그 1차전 총 48경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 것은 36경기다. 승리한 36개국 중 16강에 진출한 나라는 모두 31개국이다. 확률로는 86.1%다.

◇낮경기·바람 등 환경도 변수=이번 경기는 전력 외에도 승패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적지 않다.

우선 경기가 현지 시각으로 낮 1시30분에 킥오프된다는 점이다. 주로 야간 경기를 치르는 프로 선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대다. 양국 대표 선수들은 1차전 킥오프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 시간 등을 조절하는 등 며칠 전부터 리허설을 해왔다. 생소한 시간대 치르는 경기라 컨디션 조절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경기가 열릴 포트엘리자베스의 바람도 변수다. 포트엘리자베스는 인도양에서 사시사철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윈디 시티(Windy city)’로 불린다. 게다가 통풍이 잘되도록 뚫어놓은 공간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이 간혹 그라운드에 돌풍 현상까지 일으켜 선수들로서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총력전 펼쳐 원하는 것 얻겠다”

## 1차전 앞둔 허정무 감독 출사표

“(사상 첫 원정 16강을 향한)열정은 돼 있다.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어 경기장에 나가 좋은 경기를 펼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1일 그리스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허 감독은 이날 현지시각으로 오전 국제축구연맹(FIFA) 전세기를 이용해 베이스캠프인 루스텐버그에서 결전의 장소인 포트엘리자베스로 이동한 뒤 오후에는 훈련장인 겔벤데일 스타디움에서 태극전사들의 첫날 훈련을 지휘했다.

허정무 감독은 “선수들이 안정을 찾고 활기차게 경기에 임하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했다. 선수들의 호흡을 맞춰 가며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종전 좌우 풀백에 이영표-차두리 조합 대신에 이영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김동진(울산)을 왼쪽에 세운 것에 대해 “이영표는 어느 쪽에서도 제 몫을 해낼 선수다. 하지만 차두리·김동진·오범석 중 어떤 조합이 좋은지 보고 있다. 경기 당일 좋은 선수가 경기에 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11 구상에 대해선 이날 미니게임에서 주전조로 활약한 선수들을 언급하며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많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그리스와 1차전 선발 라인업 구상을 마쳤음을 암시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이모저모

# ‘괴차량’ 등장에 선수단 한때 긴장

○…축구대표팀이 12일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결전의 장소인 포트엘리자베스에 숙소로 정한 팩스턴 호텔 주차장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는 바람에 한때 긴장했다.

훈련을 마친 태극전사들을 태운 버스를 호송하던 경찰차에 ‘호텔 주차장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있다’는 무전이 떨어졌다. 차량 주인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어 호텔로 곧바로 돌아오지 말라는 연락이었다.

결국 경찰은 선수단 버스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한편 시내를 돌며 시간을 끌었다. 뒤늦게 외부인이 차량을 주차시킨 채 이를 알리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안전하게 선수단 버스를 호송해 호텔로 이동했다.

## 그리스팀 숙소에 도둑

○……2010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더반 부근의 움랑가 록스에 있는 베벌리힐스 호텔에 투숙한 그리스 대표팀 객실에 도둑들이 들어와 2000 달러 상당의 금품을 털어갔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절도범들은 그리스팀의 앙겔로스 카리스테아스와 소트리오스 니니스, 게오르기오스 사마라스의 방에 침입했다.

하지만 그리스 선수단은 이번 절도사건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전날 월드컵 취재에 나선 중국 기자들이 무장 강도에게 돈과 카메라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무장강도들은 중국 기자들이 탄 차가 길가에 서 있는 틈을 타 현금과 카메라 등 약 1500달러 상당의 금품을 강탈해갔다.

## 청국장 먹고 원기 회복

○…태극전사들이 그리스와 일전을 앞두고 우리의 전통식품인 청국장을 먹고 기운을 북돋운다.

대표팀은 그리스와 1차전을 벌이는 12일에는 호텔이 준비하는 빵·계란·토스트 등 가벼운 식사로 아침을 해결하도록 했다.

선수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김형채 조리실장은 경기 전날 저녁에는 선수들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도록 식단을 짰고 특별히 청국장을 식단에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 화촉

▲강신숙씨 막내 이상신군 공재용(삼성화재 공재용 대리점대표)·정옥란씨 막내 정은양=12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삼일교회 B관 1층(소예배실)

▲이상욱(세무사)·명옥기씨 장남 승훈군 김기곤·고영란씨 장녀 지인양=12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이영순씨 차남 영호군 김인숙씨 차녀 수진양=12일(토) 오후 1시30분 조선컨벤션 1층(영빈관)

▲주옥균(전 광주시 건설국장)·이정애씨 차남 성호(코엠커머셜 사장)군 임재익(서울 남향주택(주) 사장)·인재순씨 장녀 희정양=13일(일) 낮 12시50분 광주 에벌루션 웨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김판도·우대순씨 차남 태우군 진용남씨 차녀 나유진양=13일(일) 낮 12시20분 조선컨벤션 3층(컨벤션홀)

▲고재우·채정남씨 차남 현국군 김광선·이순유씨 장녀 진경양=13일(일) 오후 1시20분 웨딩의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홀)

## 부음

▲전병태씨 별세 만배·경아씨 부친상=발인 14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양요섭씨 별세 규선·승기·해정·해영씨 부친상=발인 12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정훈씨 별세 준영·향연씨 부친상=발인 12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강 선 철 님 (남/62세)
子 강선철, 강제욱
女/婿 강경아/최원준
호 실 호실 402 호
발 인 06월 13일
장 지 나주 공산 선영
故 박 정 훈 님 (남/45세)
子 박준영
女 박향연
호 실 호실 101 호
발 인 06월 12일
장 지 해남읍 선영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